

수도권기상청, 양평 용문천년시장에서 한파와 대설 대비 물품나눔 행사 가져

- 새해맞이 겨울철 위험기상 피해예방 지원의 일환

수도권기상청(청장 신동현)은 새해를 맞아 1월 5일(금) 경기도 양평군 용문천년시장 5일장 장터에서 방문 어르신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파와 대설 대비를 위한 물품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들어 위험기상이 점차 강하고 빈번해진 가운데, 이번 겨울철도 대설과 한파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험기상에 취약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용문천년시장을 방문한 어르신과 지역민에게 한파와 대설에 대비하기 위한 귀마개마스크와 장갑·귀마개 세트를 나누며 겨울철 위험기상에 대해 안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등을 알렸다.

신동현 수도권기상청장은 “빈번해지는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 “특히 겨울철에는 대설과 한파의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 밝혔다.

수도권기상청은 점차 심해지는 위험기상으로부터 지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여름철에는 호우와 폭염, 겨울철에는 대설과 한파의 피해 예방을 지원하고 대응요령을 알리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담당 부서	수도권기상청	책임자	과 장	윤기한 (031-8025-5010)
	예보과	담당자	사무관	신건명 (031-8025-5020)

참고

행사현장 사진

